

##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발언

□ 안녕하세요?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.

- 바쁜 일정에도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장범식 위원장님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님들,
- 그리고 장용성 음부즈만 위원장님,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님,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님,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님, 한기정 보험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
□ 최근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·금융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

□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과 금융업권,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치의 빈틈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이 최우선을 두고 해나가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함

❶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

- 미국 신행정부의 공약이 점차 구체화 되어 가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- 특히, 美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美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'비상금융상황대응팀'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기재부·한은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시장 변동에 적기 대응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음

❷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습니다

-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에 발표한 8.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는 “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” “처음부터 나누어 갚는”다는 정부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임

- 금번 후속조치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

-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음

- (1)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,

- (2)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“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”를 정착하며,

- (3) 12월부터는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(DSR)을 도입하여 “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” 선진형 여신심사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

-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관리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비숫물이 묻어 있는 접시를 다루듯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겠으며,

- 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,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병행할 것임

### ③ 또한,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음

-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금융당국의 소명이라고 생각함
- 특히, 미국의 실행정부를 중심으로 Dodd-Frank법 폐지 등 금융규제의 완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
- 금융개혁이 지체되면 우리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에 더욱 매진할 시점임

#### (1) 먼저 금융개혁법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음

- 현재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, 은행법 등 개혁법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바,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금융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·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

#### (2) 또한,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

-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개혁과제이며, 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임
- 지난 10월말(10.20)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보니 모든 기관들이 내년 성공적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중
- 민간 금융권도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성과중심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를 통해 우리 금융권의 진정한 혁신을 만들길 기대

#### (3) 아울러, 우리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

- 과점주주들의 집단지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조속히 형성해 나가겠음

#### □ 암처일등(暗處一燈)이라는 표현이 있음

- 길이 어두울수록 빛 한줄기의 고마움이 더 크다는 의미임
-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

#### □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과 금융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'암처일등'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